



21세기 정예인력 배출 '참사랑 인증' 신고식

'동국 참사랑 인증 교육 신고식'이 오늘(1일) 10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식순은 오정수 학생처장의 경과보고와 감사소개, 송영진(무역3)군의 선서, 송석구 총장의 격려사와 정각원장의 축원으로 진행됐다. 지난 학기에 본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선발된 50명의 학생들은 올 2학기부터 1년과정으로 인성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등을 받게 된다. 김병수 취업과장은 "동국 참사랑 인증제도는 학생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사회적으로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소양을 갖춘 정예인력을 배출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총련 관련 사과대 설문 조사

사과대 학생회(회장=이왕재·사회4)는 이번 주부터 일주일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강위원·전남대 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에 대한 의견개진을 위해 사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내용은 한총련에서의 탈퇴, 불발되자 아니라 학생운동이 나아갈 길을 묻는 것으로 한총련의 혁신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다수 학생들이 총투표를 원한다면 사과대의 '한총련 탈퇴, 불발', '한총련 신입, 불신임' 투표를 할 예정이다.

제2회 삐딱이 대학 오는 3일부터 접수

제12대 총학생회(회장=김인성·사3 이하 총어)와 사회과학대, 생명지 위원회(위원장=신순옥·영문2) 주최로 제2회 '삐딱이 대학'이 오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열린다. 이번이 실시되는 강좌 내용은 △제1강좌-이제 거부의 화살을 당한다 △제2강좌-정보와 시대의 소외된 여성 △제3강좌-왕따들이 바라본 세상 등이다. 이와관련해 신순옥 행정처 위원장은 "강의 위주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화우들과 함께가는 강좌"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한편 접수는 오는 3일부터 총어 학생회실, 도서관 앞, 동국관 앞, 사회과학대 학생회실에서 할 수 있으며, 강좌당 1만원이다.

사과대·교편 예산집행 정지

총대, 상반기 감사마무리... 생자대·총학도 재감사

제29대 총대의원회(의장=박병제·철4 이하 총대)신하 중앙감사특별위원회는 97년 상반기 감사를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해 감사시행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4개 자치기구 및 7개 단과대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총대는 지난 7월 15일 총학생회 등 6개 자치기구와 11개 단과대에 감사공문을 보내 21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생회장 부재나 감사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엔 연기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했다. 이에 총대는 대표자들이 구속 상황에 있던 생자대와 29대 총학생회(회장=구장우·아간경영4), 단위

학생회장 미선출로 대표자 부재인 사과대, 공대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기구 및 단과대에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기간 중 졸업준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법대가 감사준비에 있어 모범이 되었으며 △문과대, 경상대= 감사기간중 자료 미제출과 내용미비로 주의조치 △사범대=자료준비 미흡으로 인한 경고를 받았으며 △교편, 사과대=감사일정 불이행 및 제출자료 미준수로 인한 '예산집행정지' △총어=회장 불참석, 감사기간 불이행으로 경고 △동아리연합회=금전출납부의 기재에서 행정처리 착오발견과 함께 예

비조직감사에 걸린 것이 누락돼 예산정지 2주 등을 받았다. 한편 감사일정을 불이행하고 감사자로 미준수로 인해 총대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불교대는 오는 14일 재감사를 받으며 생자대와 비대위로 꾸러진 총학생회도 이번달 안으로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총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징계를 받은 단위 및 자치기구들은 감사기간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번 예비조직 감사와 함께 누락된 징계사항들이 합쳐져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떡드세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유재하·국문4 이하 비대위) 지난달 27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방종보고 및 개강떡잔치를 열었다. 동약의 학생들이 어울려 떡을 먹으며 2학기 생활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은 떡을 나누어 주며 웃고있는 모습. 오인택 기자

비대위, 방종보고 및 개강떡잔치

구속적방을 위한 대책 부심... 탄원서 준비 예정

'구속학우 석방 및 공안탄압 분쇄'를 기치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유재하·국문4 이하 비대위)는 지난 27일 도서관 앞에서 개강맞이 잔치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동아리 '탈'의 갈바이를 시작으로 도서관 앞에서 약 4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한총련 탄압과 8·15 통일부쟁'에 대한 보고대회와 김선문 아간장과 총학생회장과 이종대 사범대 부학장회장의 발언으로 있었으며, 이어 도서관 및 각 단과대 앞에서 개강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떡을 나누주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날 유재하 비대위 위원장은 개강 인사말에서 "지금의 공안탄압은 도를 넘어섰다"고 말하며 "총·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여러 구속학우에 대한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내에서 이날 행사를 마친 학생들은 오후 3시경, 종로에서 있었던 철거민 박순덕 열사의 집회에 참가하고 철거민 열사의 집회에 앞에서 철거민들과 연좌시위를 하고 돌아왔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2일부터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총·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원서 서명을 9일 있을 학생대표회의전까지 실시해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8일에는 배근조 생자대 학생회장장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으로 호형감할과 사회봉사 명령 1백6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신임교원 연수회 개최

연구교류처(처장=박거덕·수학) 연구부는 '97학년도 2학기 신규임용교원 연수회'를 개교 90주년 기념문화관 그늘에서 지난 29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신임교원 12명과 총장 및 각 실처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이 화공과 김병식 교수의 '연구 및 수업설계' 특강과 함께 이뤄졌다. 한편 연구교류처 연구부는 각종 연구정보 및 안내자료들을 교수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연구교류처 앞, 교수회관 입구, 동국관 L동 3층복도에 학술연구정보 전용게시판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을 진단한다 ①

공간·장서 부족 만성고질병 독서실 대신 도서관으로 거듭나야

현상 보고 도서관은 도서부족, 공간부족이 문제시 됐다. 이에 도서관의 체인 문제점을 이번을 포함해 4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편집자

도서관에 설 자리가 없다? 본교 중앙도서관(관장=임효일·독어독문학)은 한정된 공간 속에 학생들의 급격한 증가로 포화상태에 있다. 공간문제부터 시작하여 열람실·장서·학술잡지·예산지원 현황 등 관련 중앙도서관이 대학의 심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 진단해 본다. 중앙도서관의 가장 큰 당면 문제는 공간부족이다. 학부제 실시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1학년들이 도서관에 모여드는 현상은 이미 낯설지 않은 풍경이며, 취입이나 고시준비 등으로 늘어난 학생들, 거기에 편입학생 증가로 도서관은 미어터지고 있는 상태이다. 거기에 휴게실 등 학생 편의시설들도 그 인원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남산보호 건축법에 걸려 더이상 증축을 하지못한채 작년 10월에는 도서관과 붙어있는 교수회관 3층을 참고도서실과 정기간행물실로 이용하는 등 중앙도서관은 공간문제 있어 이미 그 한계점을 드러냈다. 또한 공간문제와 함께 지적

되고 있는 것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상실이다. 1인당 장서구입비가 본교와 위상이나 시설들이 비슷한 대학에 미치지 못하며, 도서구입비 또한 도서관 예산 중 반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열람석수는 부지가 넓은 지방국립대보다 많아 중앙도서관의 독서실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희망도서 신청의 경우, 그 도서가 도서관에 들어오기까지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나 걸리고 있어 시기성이 중요한 컴퓨터 관련책들은 이미 들어올때 그 가치가 거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교수나 대학원생들이 도서들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 동안 중앙도서관에는 1층에 컴퓨터 공간확보·확충이나 2층 과제도서실의 서고 정리 그리고 3층 참고열람실의 '외부기관 문헌정보 서비스' 시행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편의가 제공됐다. 하지만 누락된 공간 문제와 장서부족문제가 여전히 그 앞에 산재해 그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에서 말한 공간 문제와 장서구입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왜 그런 문제가 고질화해 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찾아봐야 한다. 최정식 기자

한전무대

유혹의(?) 아픔

O... YS, 이진제 경기지사에게 은밀한 유혹(?) 이지가사 단독출마 의사를 밝히자 이회창대표 밀어주기(?)운동의 행동대장(?) YS는 초조해졌는데, 불안해진 YS, 이지사를 만나 출마포기를 권유(?) 했으나 이지사는 한사코 사양했다. YS, 한숨을 내쉬며 측근에게 말하길, "이(李) 사태를 어찌?" 이에 회전무대자 알, "각하, 치과에나 가 보시는 게 어떨겠습니까?"

개강연기

O...오전 11시 동국: 대학이 어디가? 대학: 음, 집에 강의실에서 강의 듣고 있어야 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 둘 학교를 떠나는데, 개강 첫주 새마음·새품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맞는 것은 철관의 '유감'이라는 글자뿐이라고. 이에 집으로 가던 학생 왈 "우리 학교는 왜 학생들의 개강이 교수님보다 한주 빠른가요?"

남초현상

O... 모 교양과목 첫 수업시간, 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탓인지 강의실이 초만원에 이르지 할 수 없었는지? 분반이 왔는데, 단과대 순으로 분반이 되자 일부 남학생들이 아우성. 이유인즉 이른바 남초현상에 허덕이는 정상태, 생자대, 공대 등으로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유독 큰 소리로 부정(?)하는 남학생이 있어 회전무대자 귀기울여 들어보니, "교양수업에서도 동성화(?)를 해야겠습니까? 좀 섞어주세요!"

퇴직금 소동

O...헌법 재판소는 기업의 직속 기관(?) 다름아니라 헌법 재판소가 기업에 파산했을 경우 퇴직금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이는 기업 부도의 원인을 경제구조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않고 노동자에게 찾았기 때문이라는데, 판결을 본 한 직장인 왈 "법원이 판결 잘못 내리면 퇴직금 없는 것 맞죠?"

졸준위, 앨범 포지디자인 공모

사진 미촬영자 재촬영 실시

제 9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상욱·경제4 이하 졸준위)는 98학년도 졸업앨범의 포지디자인을 공모한다.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공모는 자유 출품작은 지난 27일 시작되었으며 오는 24일 마감이다. 박상욱 졸업위 위원장은 "졸업 앨범 제작에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연대성을 높이기 위해 졸업 앨범 포지 디자인을 공모하기로 했다"고 의의를 밝히며 출품작 중 3개를 선정하여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각 단과별 졸업앨범 재촬영이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4학년 북학생과 미촬영자 및 재촬영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진촬영 중 개인 프로필 사진은 각 단과대를 중심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뤄지며, 학사모 사진은 희망자에 한하여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예정이다. 촬영일정은 다음과 같다. △9일-문과대학, 이과대학, 불교대학, 공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10일-사과대학, 경상대학, 아간경과, 생자대학, 예술대학 등이다.

따뜻한 한가위는 가족과 함께! 경제적이고 편안한 한가위는 학복위와 함께! 일관적인 동약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학생복지위원회 일꾼이 한가위 기간동안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동약인 여러분께 교통편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서울에 남은 동약인 여러분께 한가위 한마당 잔치를 마련 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동약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학생, 교직원을 불문하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귀향사업 내용

1) 교통편 제공

- ▶ 비행편 (제주도 왕복편) - 대한항공
  - 출발시간 : 귀향 - 9월 12일 늦은 1시 5분, 귀경 - 9월 18일 늦은 8시 55분
  - 출발장소 : 귀향 - 김포공항, 귀경 - 제주공항
  - 비 용 : 기존 항공권의 30%를 할인 (환불은 9월 4일~9월 5일입니다.)
- ▶ 버스 편
  - 출 발 : 9월 12일 이른 10시
  - 출발장소 : 대운동장
  - 비 용 : 5,000원(도시락 + 기념품)
  - \* 귀향 학우(버스)에게 도시락과 기념품을 나누어 줌
- ▶ 종 합
  - 예매기간 : 9월 1일 ~ 9월 5일 이른12시~늦은 3시
  - 예매장소 : 중앙도서관 앞
  - 환불기간 : 9월 8일 ~ 9월 9일 (단 비행기는 9월 4일 ~ 9월 5일)
  - 환불장소 : 학생복지위원회
  - \* 버스나 비행기표의 환불은 환불기간이유는 절대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한가위 귀향버스 노선표

01. 춘천 - 홍천 - 양양 - 속초	21. 경주 - 울산
02. 원주 - 강릉 - 동해 - 삼척	22. 광주
03. 제천 - 영주 - 안동	23. 목포 - 영산포
04. 충주 - 문경 - 상주	14. 춘천 - 여수
05. 청주 - 대전	15. 춘천 - 영고 - 고흥
06. 대전 - 논산	16. 김천 - 대구
07. 천안 - 예산 - 홍성	17. 구미 - 대구
08. 아산 - 당진 - 서산 - 태안	18. 대구
09. 익산 - 군산	19. 영천 - 포항
10. 전주 - 정읍 - 고창	20. 포항

상황에 따라 이 노선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인 이하 탑승시 노선 변경 및 폐지)

민족동국 29대 총학생회 참된 삶의 복지공동체 구현의 한길 열세번째 학생복지위원회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

'97 2학기 단기강좌 개설 안내

여학생 부처에서는 이번 2학기에 아래와 같은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단, 정원20명이하의 강좌는 폐강되며, 최대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 마감)

1. 접수기간 : 1997. 8. 27 (수) - 1997. 9. 5 (금)
2. 장 소 : 계산관(사범대 옆건물) 1층 안내책상
3. 대상 및 수강료 ① 대상 - 동국인 누구나 ② 수강료 - 5,000원 ③ 강좌를 신청하면 수강증을 교부함
4. 기타문의는 여학생부처 (230-3056)

단기강좌 안내 \* 기간 : 1997년 9월 22일 - 10월 26일 동안

강좌명	강사	내 용	요일/시간
이미지 메이킹	신 단 주	1. 편집지 좋은 인상을 주는 인상법 2. 호감 가는 화장법 3.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의상법 4. 헤어스타일 등 토대 이미지메이킹	매주 목요일 (1:00-3:00)
스프루츠맨스 (패츠&볼룸)	손 제 현	1. 기본스텝연습 2. 실기 3. 빈북	매주 화요일 (3:00-5:00)
꽃꽂이와 선물포장법	강 경 이	1. 원물포장 이론과 실기 2. 리본장식의 이론과 실기 3. 꽃장식의 이론과 실기 4. 플라워샵의 운영실제 및 전망 5. 개인활동과 향후 취업방법	매주 월요일 (3:00-5:00)
건강하게 살기	삼정제일병원 의료팀	1. 배 과(2회) - 평생 건강관리 2. 차경의학과(1회) - 다이어트 3. 산부인과(1회) - 피임과 임신 4. 비뇨기과(1회) - 성격 특성에 대해 총 5회	1.화:2:00-3:30 2.화:2:00-3:30 3.화:2:00-3:30 4.금:2:00-3:30
금연교실	강사 섭외중	1. 금연과 건강 2. 금연방법 3. 금연의 실제	매주 수요일 (1:00-3:00)

동국대학교 여학생부처

'97년 2학기 사회봉사자 모집

'97년 여름방학 사회봉사활동에는 21개의 단체에서 30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국참사랑봉사단은 '97년도 2학기 사회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신청자격: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재학생, 교수, 직원
2. 신청기간: '97. 9. 3~10
3. 접수처: 학생처 장학과 (260-3050/1)
4. 봉사기간: '97. 9. 25. ~11. 21(중간고사 기간 제외)
5. 봉사단체: 약 40개 단체(장애인복지 단체, 아동청소년복지 단체, 노인복지단체, 시민단체, 교내)
6. 봉사결과: 학점부여 및 봉사활동 인증제를 실시하며 교수는 연구교류처로, 직원은 총무처로 봉사활동 결과를 통보 합니다.

○ 개인 및 단체접수를 환영 합니다.  
○ 중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선정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봉사대상단체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동국참사랑 봉사단장

‘퇴직금 우선 변제 위한’헌재 판결

시사논단

헌법재판소 ‘기본권 침해’ 노동자 반발 거세

산업안정·경제발전 위해 생존권 보장돼야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1일 헌재 결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 최우선 변제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조항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국회가 올해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98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선언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히고 있다. 퇴직금 우선 변제 규정은 기업금융의 중추적 수단인 직권과 저당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기업도산의 책임이 있는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퇴직금 제도는 사회 보장제도를 감안한 '적정한 범위' 안에서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헌재가 내세우고 있는 이 세가지 이유는 노동법의 이념으로 보나 노동현실보다 비관적이지 않음은 물론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노동법의 존재가치를 완전히 무

시한 결정이다. 노동법은 왜 존재하는가? 민법을 비롯한 사법상의 계약자유나 소유권 침해의 원칙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법도 마찬가지이다. 노동법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계약자유나 소유권 침해의 원칙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법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계약자유나 소유권 침해의 원칙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파탄을 막기위해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동법은 시민주의 원리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생존권인 노동 기본권은 기업금융의 수단인 직권·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기업도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은 우리의 경제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도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영권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에 있다. '고비용 저효율론'과 같은 자본본능적인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임금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생존 기금이다. 기업이 도산하여 직장을 잃고 다시 일터를

구할때까지 버틸 수 있는 생명줄이다. 일 자리를 잃어버린 충격속에서 이 생명줄마저 끊긴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닌가?

셋째, 퇴직금 제도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개편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현실을 너무나 무시한 발언이다. 물론 퇴직금 노동자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기업연금, 실업보험등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현재 너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안에 도입이 확실할 점도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히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보장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제도가 확립된 후에 적절한 퇴직금 우선변제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넷째, 만약 이 조항이 위한 소지가 있었다면 지난해 노사개혁과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공론화 시켰어야 마땅하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법 개정에서 이 조항이 전



연기영 법대 법학과 교수

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승복할 수 없고 타당성과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도 무의미할 것이다. 오히려 법과 사회의 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접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벌써부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시작되었다. 헌재와 국회는 이점을 깊이 새겨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산업 평화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사설

개강첫주 원칙대로 지키자

지난 한 주 서울캠퍼스는 타 학교에 비해 이른 개강, 예년에 비해 기승을 부린 늦더위로 동학을 오르내리는 많은 이들이 비자빔을 흘려야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매년 개강때만 되면 나타났던 수강정점, 분·폐강, 강의실 이동에 따른 혼란이 현격히 줄어들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2학기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강신청·정점이 안정화된 결과로 보통 개강한지 3주가 지나야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예전에 비하면 큰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시대와 학교의 변화를 제각각 지켜본 일부 불지각한 몇몇 구성원들이 아직도 '개강 첫주는 휴강'이라는 생각으로 휴강을 하거나 결석을 하는 등의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학생들은 결석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 교육개혁 이후 요즘은 출석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져 3회이상 수강하지 않아 낙제수준을 받은 학생들도 적지 않다. 반면에 교수의 사정에 따른 휴강은 어떠한가. 학생이 결석을 하면 개인의 출석부족에 결석처리되어 스스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교수가 개

강 첫주에 휴강을 할 경우에는 수업에 들어보고 정정여부를 결정하려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평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첫강의 0교시 수업을 충실히 준비해 강의에 임한 교수도 있었고 예년에 비해 휴강률도 낮아진 것지만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 서있는 교수의 모범이 아직은 아니다. 교수처에서 교수들의 강의여부를 확인하긴 하지만 요식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휴강되었던 수업도 교과과의 출강부족은 교수의 서명이 적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년 단행한 교육개혁을 통해 본교의 교육환경이 달라진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점이다. 교수에게는 교원업적평가, 학생에게는 상대평가를 실시해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어 격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극을 주어 면학분위기를 조성했다. 제도는 이제 남부럽지 않게 갖춰졌고 그 결실도 거둔 셈이다. 다만 이 제도를 발전적으로 키워나갈 생활 속의 자랄한 노력들이 부족할 따름이다. 몇몇하게 후학들을 질타할 수 있는 참 스승들과 그 스승을 뛰어넘으려 노력하는 참 제자들을 기대해 본다.

경주캠 중운위 거듭나야 한다

요즘 대학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그들로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부여받은 각 대학 총학생회가 한층더 와해 이후 그 존재여부까지 위협받고 있다. 본교 또한 예외일 수만은 없다. 본교 경주캠이 일찌기 단행한 탄핵됨에 미망한 총학이 학생들로 부터 탄핵당했기에 현 학원 정국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서울캠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다.

학원주체들간의 대화의 장을 모색하며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는 서울캠의 의지는 참으로 보기에 좋다. 반면, 경주캠은 총학이 탄핵된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동제 이후와 별반 차이가 없다. 복지부동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실망과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답답한 마음까지 든다. 방학동안 굳게 닫혀져 있던 각 학생기구 사무실들을 열어본 학생들이 분노를 느꼈을 법도 하다. 게다가 마치 방학 전 사전모의를 한 것처럼, 어느 누구라 지적할 필요도 없이, 대부분의 학생기구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일반 학생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운위' 역시 아무런 자구의 노력도 보이지 않은 채 허송세월한 3개월을 가늠해 가진 분명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우선 사과 자보의 경우 총학을 대신할 비대위 구성여부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생각한 채 '대동제가 사수된 후 잡사의 휴식시간을 가지고 자'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반성의 기쁨'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느낌마저 든다. 또한 방중에 중운위가 구성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원인 제공자들은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학생회측의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의 낮은 정치적 관심도, 학생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탓할 수는 없다. 지금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개강의 의미를 생각해 볼때 학생기구들은 지난 시간동안의 파오에 대한 반성의 자리를 학생들 앞에 겸허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구하고 싶어요

정보매체센터 건립 갈 곳 잃은 농구장

학생복지공간 위한 학교측 배려 필요

본교 운동시설 중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단연 공대앞 농구장일 것이다. 항상 농구대 하나에 대여섯개의 공이 날라다니며 농구하는 학생들로 붐비지만 농구장의 규모나 시설은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하고 협소한 실정이다. 게다가 바닥은 시멘트로 깔아서 부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그나마 하나있는 농구코트마저 정보매체센터 기공과 동시에 없어진다는 학교측이 빠른 시일내에 농구장을 다른 곳이라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학생들의 바람이다.

지난달 19일, 공대 농구장에서 정보매체센터 기공식이 있었다. 현재의 역경원과 공대 농구장 부지에 건설될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정보매체센터는 종합민원실, 역경원, 정보산업과학대학으로 활용될 예정이나 문제는 바로 그 부지에 있었던 농구장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다.

비록 관해광장, 대운동장, 체육관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대운동장의 농구대는 정식코트가 아니라 경기를 할

수 없고 관해광장의 농구대는 두 개밖에 없는데다 그 중 하나는 부서진 지 오래다. 또한 체육관의 농구대는 본교 농구부의 연습·훈련 관개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난 10년간 아마추어 농구회(회장=오예근·공학계열)는 농구장 바닥청소, 골대 보수, 바닥 선 긋기 등 회원들이 피땀 흘려 농구장을 관리해왔다. 그만큼 제대로 된 농구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크다. 아마추어 농구회의 오예근 회장은 "관제과에서 우레탄이 깔린 농구대 시설로 지급보다 더 좋은 환경의 농구코트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학교 측의 잠정적 약속만 받았을 뿐 확실하게 언제, 어디에 만들어 줄 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구장이 아무런 대책없이 없어진다면 동아리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펼치면서 농구장 건립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농구장 확보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타학교의 경우 연세대, 고려대, 숭실대, 국민대 등은 아스팔트나 우레탄이 깔린



농구코트가 3-4개나 있고 경회대의 경우 체육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학교측 시설과 기재선 계장은 "정보매체센터 공사는 업체선정이 끝나는데 대로 건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농구장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알지만 한정된 장소에서 농구장 부지를 찾으려나 위치선정이 상당히 어려워 아직 확실한 계획은 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공강시간과 쉬는시간 농구로

신용우

TV 신한국

Advertisement for SUNKYONG featuring a large gear graphic and text about 21st-century goals and vision.

동약문



개강 첫 주

8월 26일 화요일 모 수업시간. 개강후 느껴지는 설렘과 감좌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강의실에 모인 학생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사이에 방학동안 뭘 하고 지냈다는 등 이런저런 말이 오가고 있고, "야, 이 수업 어떻게? 재미있대? 과제는 많대?" 하는 수업에 대한 말도 학생들 사이에서 쉴 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생들 중에는 종합강의 시간표와 팬을 손에 들고, 첫 수업을 수강해 본 후 수강정정을 하려는 학생도 대다수였는데... 수업시간 10분이 지나도 교수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교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탓에 웅성웅성해진 강의실. 잠시 후 한 조교가 의사는 대뜸 "휴강입니다." 하고 바 버린다. "휴강"이라는 말에 신이 난 듯 웃고 떠들며 강의실을 나가는 학생도 있는 반면, 한 쪽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 수업 들어보고 수강정정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수강정정을 하란 소리아, 말란 소리아?", "이렇게 휴강 할 거면 수강 정정기간은 왜 있는지 모르겠군.", "이 수업을 듣느라 마느냐 그것이 문제제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이다. 학생들은 개강 첫 주에 수업을 미리 들어보고,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 3일간 수강 정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몇몇 개강 첫 주 휴강은 수강정정시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좀 더 자유롭고 후회없는 강좌선택을 하게 하고자 하는 수강정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후야야 '야, 이 수업 잘못 신청했구나' 하고 수강신청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수강신청과 수강정정 그리고 수업 사이에 '개강 첫 주 수업'이 제대로 자리매김 해야만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이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학기에는 첫 수업의 자리매김으로 학생들이 '후회없는 선택'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환 기자



사진은 건천을 대곡리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공사현장

주민들 반대불구 소각장 들어선다

쓰레기 불완전 연소될때 다이옥신 유출 염려... 안전방치책 필요

건천을 대곡리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둘러싸고 경주시당국과 건천을 대곡리 주민들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9월 목동·평촌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유출된 이후 부터이다. 이후 각 지역의 주민들은 소각장 건립 반대 운동에 나섰고, 경주 인근 지역의 건립 운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건천을 대곡리 주민들이 반대 농성을 벌여 얻은 것은 현장 진입을 막는 가처분 신청포지판과 울창한 조림림을 둘러싸고 주민들을 막고 있는 진입 금지용 빨간 글이었다. 건천을 대곡리 산 85번지에 조성중인 쓰레기 소각장의 논란은 지난해 9월 공사착공이 들어간 후 건천을으로부터 소각장 설치 통고를 받으면서부터이다. 대곡리 주민들은 "사전에 주민들과 아무런 의견 교류도 없이 행정당국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를 수는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반면 경주시 청소 담당과 예서는 "소각로 입지 결정은 읍령 정단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에서 통보한

할뿐. 사실상 운행중에서 결론이 난 일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곡리 주민들은 소각장 설치 반대농성을 위해 플래카드와 깃발을 집결하며 내걸고, 집단지 배포를 비롯해 주민 1천 3백 20명의 서명이 적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농성을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천을 소각장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다른이던 소각시 유출되는 다이옥신 함량이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무색무취의 유기물로 탄소·수소를 포함한 유독물질의 한 종류이며, 음식을 섭취로 체내에 축적될 시 암 발병이나 기형아 출산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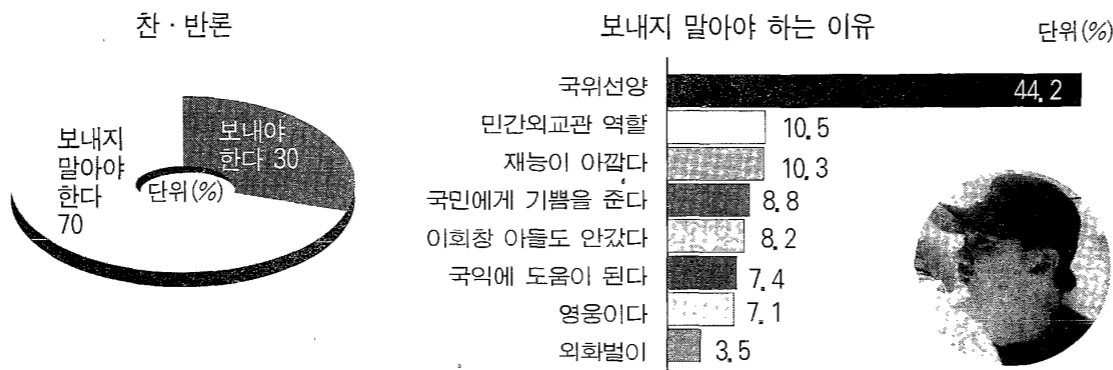
경주 전년대 환경 공업연구소 최석규 소장은 "음식물 쓰레기 수분으로 인해 불완전연소 될 경우 다이옥신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당국의 소홀한 관리를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다이옥신의 배출을 막기 위해 신설 소각로에 한해서

선진국 기준을 전곡쓰레기 소각로에 적용했으나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현 4%인 쓰레기 소각률을 2001년에는 30% 수준으로 높여 소각장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 최석규 소장은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로 설치의 최선의 대안책이지만 지역적 특색과 국민의 인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진국의 사례만 본받는다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과 행정당국의 엇갈림 의견에 대해 "남비현상은 마땅히 지양돼야 하지만 정부의 운영 관리에서도 가연성, 비가연성 물질을 따로 분리해 쓰레기 양을 줄이고 다이옥신의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60년대부터 주민들의 손으로 일궈온 조림림이 사라지려는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정부는 근본대책을 세우고, 공개보도와 공청회를 여는 등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

박찬호 병역 문제 여론 조사 - 본고 500명 대상



기획-15대 대선 어떻게

15대 대선을 앞두고 본사에서는 총 6회에 걸쳐 '대선시리즈'를 게재할 예정이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글 실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총론
2. '미디어 정치' 이렇게 자리 잡아야 한다.
3. 대권주자들의 경제정책 분석
4. 동대생이 보는 대선
5. 대선의 구도와 윤곽
6. 올바른 유권자의 태도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이번도 '역시나'

어디를 가나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제가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권력이 집중된 권력구조하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걸렸으니 당연한 일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21세기를 여는 정부를 출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커다란 상징성을 갖는다. 20세기에 우리나라가 왕조체제와 식민지배를 거쳐 외세에 의한 해방과 민주국가건설이 동족분단과 독재정권으로 일목지고 인권유린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문명정부를 자칭하는 현정권의 개혁정체도 실패로 끝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속에서 이제는 정치권이 정권을 차릴 때가 되었다. 건단 정치행태는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좌절의 역사를 청산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런 역사를 지향할 만하다.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치만 제대로 서준다면 희망이 있다. 21세기를 앞둔 현시점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릴 수는 없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21세기 우리 국가의 모습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앞으로 100년간을 이끌어갈 국가의 진로에 대한 원대한 비전이 제시되고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선거는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다. 누가 국가를 위하여 바랄만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누가 당선되는 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었고 선거운동의 방향이었다. 정책선거를 표방했던 지난 번 대통령선거도 막판에는 지역연고주의에 의하여 판가를 났다. 우리는 한 번도 정책선거를 해본 적이 없다. 지역연고주의가 선거판을 휩쓰는 것은 안보정국하에서 다원적인 정책적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정책간의 논쟁이 발붙일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색깔논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우익적인 정책만이 허용되었고 정치인들은 이에 편승하여 보수경쟁을 일삼다보니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상대방 출신배기와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득표전략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현정권의 개혁정체가 실패로 끝난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의 징표로 해석된다. 적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군사정권에 대한 향수가 자리잡고 있다. 자칫하면 민주주의의 폐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치권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국민이 정치인을 이끌 수밖에 없다. '밑에서 위로'의 변화가 없는 한 이번 대통령선거도 연고주의와 보수경쟁, 국가발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대방축이기에 의해서 선거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대통령 선거만은 21세기 국가의 틀을 짜기 위하여 모든 계층의 국민이 나서서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을 제시하고 정치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해야 한다. 21세기를 경영할 새로운 국가권력구조의 틀로부터 부와 가치의 배분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번 대통령선거는 국가운명의 대한 거대한 담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나서지 않는 한 이번 선거도 '역시나'로 끝날 것이다.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몫이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

삼보컴퓨터  
http://www.trigem.com

앗!  
"레이-밴 선글라스닷!"

시원한 찬스

Trigem & EPSON

삼보 컬러프린터 600H(1440DPI)를 할인가격에 레이-밴 선글라스까지 보너스로 드립니다

기간 97. 8. 27~9. 13

사은품 레이-밴(Ray-Ban) 선글라스  
킬러-루프(Killer-Loop) 선글라스 중 하나

해상도 1440DPI로 컬러 커뮤니케이션 한다.

삼보프린터 4P  
Trigem & EPSON Stylus COLOR 600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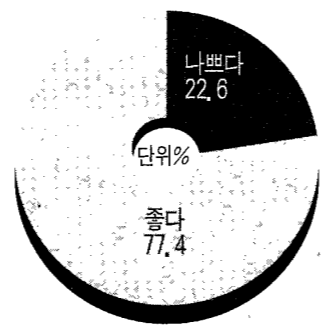
- 인쇄방식 미러방식
- 해상도 1440DPI x 720DPI
- 인쇄속도 흑색6PPM, 컬러4PPM
- 용지지원 A4, B5, 엡시, Letter, OHP film, T-shirt 전사용지
- 가격 322,000원 → 400,000원(VAT 포함)  
단, 가격화안은 9 10까지

컴퓨터는 젊은사람들이 잘 만듭니다. 삼보

수강신청과 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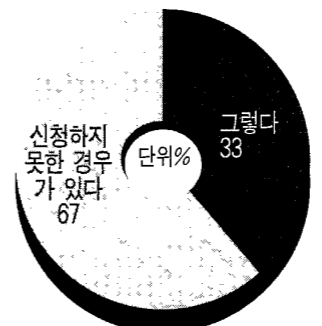
수강신청 시기



컴퓨터 이용한 수강신청



수강신청에 대해



원하는 강좌를 신청했나

# “원하는 강좌 듣기 힘들어” 67%

분·폐강 따른 혼란·시간표 불합리등 불편, 첫 수업 후 정정토록 해야

지난 8월 25일에 97학년도 2학기 개강을 해 모든 수강신청과 수강정정이 끝나고 개강 첫주가 지났다. 본사에서는 본교생 5백명을 대상으로 '수강신청과 정정'에 대한 설문조사하는 등 '수강신청과정정'이란 기획면을 꾸려 보았다.

본교생의 대다수가 97학년도 2학기에 듣고 싶은 강좌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수강신청시 강좌가 다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분·폐강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97학년도 2학기를 맞아 본교생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강신청과 수강정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수강신청이나 정정시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고, 수강신청과 수강

정정에 대해 한 마디 적어 달라는 질문에는 △강좌가 다양하지 못하다 27% △분반이나 폐강, 강의실 변경으로 혼란스럽다 15.8% △시간표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14% △첫 수업을 듣고 난 후 수강정정을 해야 한다(정정기간을 늘리고 시기를 늦춰야 한다) 12% △정원제한을 안 했으면 좋겠다 10.5% △불편하다 7% △비교적 편리하다 6.4% △일방적인 학사행정이다 4.4% △집에서도(통신 등) 수강신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4% △교수 임의의 시간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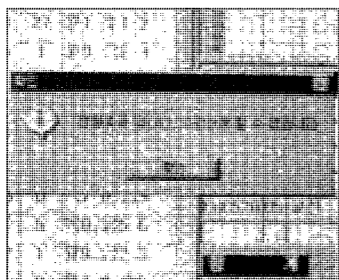
을 안 했으면 한다 1.1% △컴퓨터 에러 등의 문제점이 있다 0.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수강신청시 강좌선택의 다양성 정도에 따라 수치가 나타내 달라는 질문(10점 만점)의 결과가 평균 3.2점으로 집계된 것으로 볼 때, 강좌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한 시기는 방학 전 수강신청 기간 85.4%, 개강 후 수강정정 기간 14.6%이고,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 중 47.3%가

정정기간에 신청을 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해 일부 학생들은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강신청을 컴퓨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77.4%가 '좋다', 22.6%가 컴퓨터·장소 부족 등의 이유로 '나쁘다'고 응답해 컴퓨터를 이용한 수강신청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강신청·정정에 대해 단위%

27	강좌가 다양하지 못하다
15.6	분·폐강, 강의실 변경으로 혼란스럽다
14	시간표가 합리적·이면 좋겠다
12	정정기간 늘려야 한다
10.5	정원제한이 없어야 한다
7	컴퓨터 수 부족, 절차 복잡하다
6.4	비교적 편리하다
4.4	일방적인 학사행정이다
1.4	집에서도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1.1	교수 임의의 시간표 변경이 없어야 한다
0.6	컴퓨터 에러가 안나면 좋겠다

김용원 기자



정원초과입니다.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수강정정시 인원제한으로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김주환 교수저장

## “학생들의 신중한 판단 바란다”

수강신청으로 분주한 일과를 보내고 있는 교수저장(김주환·지리교육학)을 만나 수강신청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보았다. -수강정정시 학생들이 수강제한으로 인해 정정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생들이 제때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이다. 제대로 과목을 신청을 한다면 방향중 분반을 해서라도 그 과목을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그 때 신청을 신중히 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강신청을 제때 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또한 정정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강정정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일부겠지만 강의 없게 신청을 하고 또 일부는 정정기간에신청을 하는 것 같다. 정정하는 이유는 그 과목을 들어본 후 그 과목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가 아닌가 싶다. -재학생의 경우가 아닌 편입학생과 복학생들의 경우 수강제한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 복학생의 경우는 재학생과 동일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을 위한 수강신청기간이 있지만 그들도 이때 신청을 하지 않고 정정기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편입학생들은 그들의 등록시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수강신청기간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직원을 나름대로의 지도를 통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 자택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로의 발전이다. 지금은 계산원에 신청을 해서 일부가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집에서 신중히 과목을 고를 수 있다면 수강정정을 하는 경우도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수강신청의 정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 솔직히 말하자면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들이 과목선택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 상대평가의 실시로 흔히 학점을 잘 주는 교수의 과목을 선택을 하거나 정정을 하는데 이는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목선택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태훈 기자

편입생 공병민(인문2)

## “편입생 위한 수강신청제도 보완 필요”

수강신청시 인원제한, 과목에 대한 사전 인지부족 등으로 선택의 폭이 다소 좁은 편입생들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학기에 편입한 공병민(인문학부2)군을 만나 보았다. -본교가 컴퓨터로 수강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컴퓨터로 하니 편리하긴하다. 하지만 컴퓨터 이용에 관한 설명이 좀더 자세하면 좋을 것 같다.

-수강신청전에 학교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합격후 편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수강신청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그 자리에서 종합강의의 시간표를 받았으며 컴퓨터로 수강신청을 한다고 들었다. -수강신청 절차는 어떠한가. =종합강의의 시간표를 살펴보고 수강할 과목을 선택했다. 시간 여유가 있어 신청할 과목을 미리 들어보고 수강신청

을 했다. -신청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은. =편입생들은 재학생들보다 수강신청을 늦게 한다. 이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수강인원이 다차서 신청하지 못한 과목도 있다. 편입생들에게 수강신청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한다. 수강인원 제한 때문에 다른 시간표까지 조정을 해야 할뻔더러 다시 선택한 과목을 사전에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

에 강의의 제목만 보고 신청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수강신청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입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 제도의 도입에 무리가 있다면 수강정정 기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수업을 듣고 나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유>

One & On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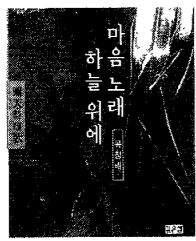
The future together

## 보는 눈이 다르다면 미래가 달라진다.

보다 멀리 볼 줄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직 최고를 향하여 변화와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역사를 바탕으로, 코오롱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이미 과천 신사옥을 완공하였고, 첨단 섬유공학, 정보통신, 유통, 레저 등 미래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진보적인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그곳에 코오롱이 있습니다.

### 책소개

#### 마음 노래 할 수 있어



"제삼은 아름답고 슬픈 것이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 가라앉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불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한 시들이 5백페이지를 하나 가득 채우고 있다.

본교 불교학과 목정배 교수가 발간한 시집으로 올해 3월에 발간한 '비천 시승가'에 열과 성을 다한 몇 편의 시를 더했다. 김은삼, 정가-12,000

#### 소년비행학



"소년들은 장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주인공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환경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에 아직 멀다"

사회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해 청소년들의 비행의 현상론, 원인론, 대책론을 체계화하여 더하고 있다.

92년 '범죄심리학'을 발간한 본교 경찰 행정학과 이상현 교수가 발간했다. 박영사, 정가-8,000

#### 히말라야의 수행자들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을 구하기 위해 10여년 남짓 인도와 히말라야를 떠돌던 여러 수행자들의 관련 사진과 글을 엮었다.

저자인 석해진 스님은 대학에서 한 의학을 공부하고 1986년 출가하여 지금까지 히말라야의 낭만으로 살고 있다. 불광, 정가-6,500

#### See

"대중문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질 판파라와 엘로우 저널리즘의 난리블루스가 전 국민의 도덕 불감증을 일으키고 있다. 벗어나서 음악 발전을 이루고 벗어나서 애국지만 될 수 있다면 See는 Playboy지가 되어도 좋다"

'바른 음악 문화의 정착을 위한 대중음악의 날'을 목표로 지난 1월 창간했다. 대학생 리포터를 모집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상 미디어, 정가-4,000

### 동서의 조화 달하나 천강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발전=현대화=경제성장=서양화의 방향으로 정신없이 돌진해 오면서 동양의 전통 가운데 있는 영원히 값진 보물을 소홀히 해 온 동안 서양은 오래 전부터 동양의 신비를 탐구해 왔다. 대학에서 영어와 한문을 가르치고 인도와 중국의 고전들을 서양어로 번역하고, 티베트의 필서를 번역해 온지 1세기가 훨씬 지났다.

유수한 대학엔 반드시 인도학, 혹은 동양학과나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다. 21세기의 교육지표로서 세계화와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는 이즈음 불교라는 동양적 전통의 건학이념을 둔 동국대학교가 짙어진 역할과 과제는 자못 의미있고 무거운 것이다.

이지수  
불교대학 불교학부 교수

### 마술적 사실주의 중남미 현대소설

라틴 아메리카 문학...21세기 혼돈다

기존 사실주의 깨고 신화·환상 넘나드는 문학공간 생성

중남미의 현대소설은 아메리카 현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른 문화 양식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문학의 자리를 구축했다.

1930년대의 지역주의인 사회적 사실주의에 반기를 들고 혁신적인 기법과 새로운 언어 창출을 통하여 범 세계적인 형태의 소설을 태동시킨 일련의 작가들이 있었다. 거대한 도시로 고립된 개인들 그리고 환상문학의 구사 등은 심리적인 투사로 외부적인 현실보다는 현실의 깊숙한 부분을 분석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현실주의, 마술적 사실주의, 실존주의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러한 작가들의 작품 활동의 사상적·예술적 배경이 되었다.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는 독일인인 프란츠 로가 후기 표현주의 회화를 다루는 그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그후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가 중남미 예술 분야에서 1920년도와 1930년 초반까지 유행했다.

이르투로 우솔리르 베에프리가 '베네수엘라 단편'이라는 책에서 중남미 문학의 특성을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를 빌어 설명하였다. 쿠바의 대표적 작가인 알레호 카르 벤티에르는 '현세의 왕국'과 '여명의 세기'에서 역사적 현실과 아프리카풍 쿠바 민속에 근거하여 '경이로운 현실'이라는 독특한 문학세계를 형성했다. 그의 경이로운 문학세계는 이국적인 요소와 인디 문화의 환상적 요소를 현대 문화적 시각과 대비시켰다.

중남미 문학의 태두리를 뛰어넘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형이상학적 교보, 가정과 원칙에 근거한 우화, 비현실적인 상징 또는 상상을 인물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그가 추구하는 문학세계는 환상적이다. 형이상학적인 고뇌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문은 시간이다. 보르헤스는 시간을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회귀하는 영원한 현재로 이해하였다. 그가 작품에서 그려내는 환상은 초자연적이고 마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자연의 질서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비현실이 현실과 만날 수 있는 문학적 공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르헤스에게 문학이란 문학과 인생, 현실과 비현실, 삶과 꿈 등의 이중적 관계를 밝히는 극적인 유희나 이 이중적 구조의 대립은 세계의 무한함을 담아 낸 언어를 찾아내는 문제로 귀결된다.

1960년을 기점으로 중남미 문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첫째, 젊은 세대 작가들이 대거 등장한다. 그들의 대부분이 소설가이다. 둘째, 이 젊은 작가들이 생산한 작품들을 읽어내는 일반 독자들의 출현이다. 이러한 상황이라 소위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봄'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 봄문학은 수많은 외국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각국에 소개된다. 서술은 단순한 서류식 나열 또는 자연주의의 서술기법이 아니다. 주제도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도 작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열린 구성을 택한다. 독자도 전통적인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현실과 환상에서 시간과 인물이 혼재되어 있는 허구 속의 상황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한편 언어적인 면에서 지역 언어의 사용과 현실의 한 면을 다루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언어적 경험을 시도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다양한 모든 어휘의 언어들을 작품에서도 사용한다. 또 소설의 작가들은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작품에 담기 전에 장소, 인물들을 설정한 다음 상상의 길로 접어들다. 이 소설 이전까지는 소설의 현실적 영역을 상상영역에서 구분하는 일이 가능했다. 그러나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세베로 시르투 이로부터 소설은 현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상상적 영역으로 바뀐다.

따라서 신소설이 다루는 현실이란 현실과 신화의 상징이 포함되는 광의의 현실인 것이다. 노벨 수상작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백년간의 고독'에서 그가 직접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한 기억의 골레 속에서 형성된 신화적 요소들과 만나 그의 독특한 마술적 문학세계를 이룬다. 이러한 그의 문학세계가 가장 잘 나타난 작품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진 '백년간의 고독'이다. 이 작품으로 198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

마찬가지로 마르케스는 인간이 운명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신화 속에 감추어 버린다. 이상주의와 거리를 둔 채 마르케스는 마술이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세계를 창조하는데, 이 세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중남미 현실 그 자체를 대변한다. 이렇게 중남미 현대 소설가들은 신화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을 중첩시켜 현실과 비현실의 벽을 허문 채 21세기의 중남미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정원  
한국외대 서반어학과 교수

### 미리가 본 21세기, 그곳엔 벤처정신이 꿈틀대고 있었다.

Yahoo! 선정 COOL EVENT-LG 21세기 선발대 인터넷 생중계!

LG전자사 개발한 손바닥만한 휴대용 PC Handheld PC를 이용해 해외 동영상 전송 LG 홈페이지로 전송,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LG21세기 선발대 이벤트(http://www.lg.co.kr/21c)가 Yahoo! 선정 COOL EVENT로 뽑혔습니다

정경영·초우량 LG

50년

다-3. 꿈이야 생시야, Handheld PC 까지!

접속해 LG 홈페이지에 띄우는 일. 이를하여, BROADCAST가 아닌 CYBERCAST라나. 이를 위해 손바닥만한 컴퓨터 Handheld PC까지 지급받았다. 이제 출발 사들전. 근데 우리 진짜로 가는거 맞아?

와우! LG 21세기 선발대로 뽑힌것도 꿈만 같은데 인터넷 생중계 팀으로까지 선정되다니. 인터넷 생중계란 매일매일의 21세기 선발대 활동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인터넷에

영시야. 공룡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 미국 산호세에 있는 IBM 본사를 방문. 대기업내 벤처제도에 관해 알게되었다. 개인 혹은 부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성·기술·인력 시스템이 바로 그것. IBM 같은 대기업도 벤처기업활동에 눈돌리고 있다는 얘기가. 공통처럼 거대한 덩치의 조직을 융통성있는 소규모조직으로 바꾸는 일. 그게 바로 21세기에도 경쟁력을 잃지 않고

영나홀. 무일푼이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만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신족단지에서 우수업체로 손꼽히는 Weltrend Semiconductor 회사의 사장과 만났다. 우리의 관심은 그의 창업과정. 놀라웠던 건, 그가 창업시 자금상의 어려움은 거의 없었다고 말하는 대목이었다. 아이디어만 확실하면 투자자들은 서로 투자를 못해 안달이 날 지경이라는 거다. 아이디어가 곧 경쟁력이라는 얘긴데 이거야말로 벤처정신의 핵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등의 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지원하는 살아남는 생존책 아닐까.

을 여름에도 LG 21세기 선발대가 세계의 선진문화와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LG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초우량의 현장에서 세계최고로 배워 초우량한국을 실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LG / 인재개발위원회  
인터넷 채움정보 http://www.lg.co.kr

# '97 동대 만해의 자리는 어디인가

## 짧은 소식

### 학교 안에서

#### '97 하계 워크숍 연극제

본교 예술대학 연극영상학부 1학년, 2학년, 3·4학년의 워크숍 작품이 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각각 공연된다. (260-3671)

3·4학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최인훈 작. 성종훈 연출. 세계대학연극 축제참가작으로 '심정전'을 토대로 우리네 여인들의 고뇌를 담아 낸 작품. 13일 2시, 4시 반.

2학년 '산불' 차범석 작. 이강훈 연출. 6·25를 배경으로 1950년대의 시대상황을 정확히 묘사. 5·6일 4시, 7시. 7일 3시, 6시.

### 청혼

본교 대학원 연극학과 제 11회 워크숍 작품. 안톤 체홉의 원작을 각색하여 무대에 올린다. 남녀의 청혼에 토지문제가 얽혀 벌어지는 해프닝. 4, 5일 6시. 6, 7일 3시, 5시. 학술관 소극장에서

### 학교 밖에서

####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97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꿈의 축제. 부산에 이은 두 번째 본격 국제 영화제로 대중적이고 감각적인 장르 영화제. 사랑·환상·모험을 주제로 총 25개국에서 출품한 80여편의 작품들이 공포와 웃음, 전율과 쾌감, 기상천외한 상상력의 판타지 속으로 대중들을 초대한다.

5일까지. 부천시민회관, 부천 시청, 영시네마극장 1·2관은 유료(4천원). 소향관, 삼정복지회관, 야외상영은 무료. (032-539-0303)

#### 세계연극제 '97 서울·경기

20세기 마지막을 장식할 마지막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 올림피아드. 5대륙 30여 개국의 연극, 무용, 음악극 등의 예술문화와 전통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행사기간 중 14일부터 20일까지 ITI 총회 및 부대 행사가 진행되고, 세계마당극 큰잔치가 6일부터 28일까지, 베세토 연극제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세계대학연극 축제가 7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공식 초청 공연 및 서울연극제는 다음달 15일까지. 본교 예술극장, 대학로 등 총 42곳에서 공연. (741-2971)

#### 제2회 광주비엔날레

'97 KWANGJU BIENNALE

지구촌의 정상급 문화 이벤트로 가능성을 과시한 96년에 이은 제2회 광주비엔날레.

'지구의 여백'이라는 주제로 분전시, 특별전, 기념전, 국제학술회의 등 다양한 문화축제 행사들로 구성되었다. 동·서양, 신인거장 등 분야별로 고루 선정된 세계적 화제작가 1백17명이 참여, 행사의 안정감을 높이고 현대미술의 모든 면모를 전시했다. '속도', '공간', '혼성', '권력', '생성' 등의 5개 주제관으로 구성.

11월 27일까지(월요일 휴관), 광주 광역시 중의공원 문화벨트 (062-524-4906)

#### 황병기 초청공연

'깊은 밤 가야금 소리'의 저자이며 가야금 독주곡의 독보적 이론 황병기씨의 가야금 연주를 비롯해 여창가곡, 거문고·대금·장구 독주와 즉흥 합주 등의 다양한 무대가 한국 국악협회 포항지부 주최로 펼쳐진다. 7일 7시. 포항 문화예술 회관. (0562-49-1331)

# 불교·문학·민족 삼위일체 생 관철

## 심우장 철거위기 불교계 저지로 수습

만해 한용운은 현대에 세 가지 부분의 찬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첫째는 뒤늦게 진리의 길, 불교에서의 업적이 고 불교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글, 셋째는 일제 치하에서 수난받은 민족 선각자로서의 그의 위치이다.

그러나 만해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만해는 국립묘지에 아닌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돼 있다.

그러나 망우리 수 많은 묘비사이에서 만해의 숨결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서울시 성북동에 자리잡은 심우장에서 보다 더 그를 느낄 수 있다. 심우장은 정면 4칸과 측면 2칸의 장방형 팔각 기와집으로 일부 학자들은 그의 할일 독립정신을 그가 쓴 몇 권의 책보다 심우장에서 가장 잘 엿볼 수 있다고 전한다. 그 이유는 심우장의 집 방향 때문인데 당시 고층 건물이 많지 않던 때 심우장에서 정면으로 조선총독부가 보이자 만해는 조선 총독부를 마주 보지 않겠다고 고집하여 일방적인 한옥구조와 달리 북향으로 집을 지었다. 이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위 생활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만해는 여전히 심우장에서 글을 쓰고 불교의 교리를 설교하며 독립운동을 위해 살을 깎고 고민을 묵묵히 해나갔던 것이다.

1933년 지어진 심우장은 만해가 입적할 때까지 머물렀던 곳일 뿐더러 독립운동의 선구자인 일송 김동삼 선생이 육사하자 그 유해를 모셔 와 장례를 치르기도 해 독립운동사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시는 74년 심우장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하고 95년 광복



1933년 지어 만해가 출가하기까지 생활하던 성북동 심우장.

사진=최진기자

50주년을 맞아 표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심우장은 주민들의 재개발 움직임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성북구 성북2동의 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최광식)가 최근 심우장을 포함한 이 일대 2백 20여 대 2만여평을 재개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우장 존폐의 위기는 다행히 성북구청의 "심우장을 현재의 위치에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와 불교계를 포함한 언론계의 철거반대 움직임으로 수

습된 듯하나 심우장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음에도 본교가 이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할 때 부끄러움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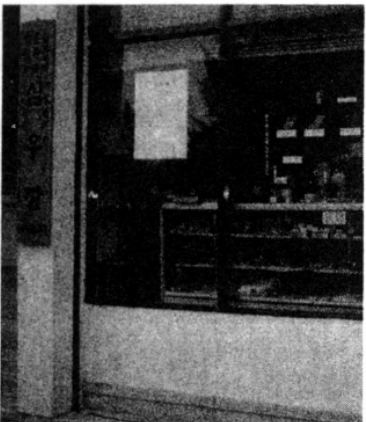
"본교의 건학이념과 만해의 삶이 이 끈 정신세계를 관찰 할 때 이것들은 매우 유사점을 갖는다" 한국문학연구소의 홍기삼 교수는 본교의 정신적 배경을 만해로 꼽는다. 본교의 건학이념이 결국 국의 역사를 해쳐 나갈 수 있는 불교적·민족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볼 때 만해는 이런 건학이념을 몸소

실천한 동국의 표본인 것이다.

만해가 동국인으로서 명진학교를 다닌 것이 우리의 광명이 아닐 수 없다는 목재배 교수는 심우장 소식을 접하고 "심우라는 것은 본래 소를 사람의 마음에 비유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자는 뜻인데, 만해는 부처님을 향한, 민족을 향한, 문화를 향한 그리고 국민을 향한 마음을 찾아갔던 말야. 그런데 우리는 만해를 위해 무엇을 찾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라며 안타까움을 표한다.

최진기자

## 잠깐소개



### "심우장을 아시나요?"

본교 도서관 옆에 자리잡고 있는 심우장을 보지 못한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심우장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간다. 자, 관심을 가져보자.

우선 심우장은 '불교용품'을 파는 곳이다. 시중 가격보다 10% 할인된 불교서적이 범어원에서부터 수업교재에 이르기까지 전여권 정도가 진열돼 있다. 또 불교 의식과 관련된 전통다기, 정통 차, 향재품, 단주 등의 물건들이 일반 소매가격보다 싸값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89년 불교대 학생회에서 학원 지주화 운동으로 지금의 공간을 확보한 후 90년 4월 세워진 심우장은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만해 한용운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종립대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함은 물론이고, 심우장은 불교도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초보적 신앙상담 창구가 되기도 한다. '불교이념구현 담당기관'이라는 자칭에 손색없이 잘 어울리는 곳이 바로 심우장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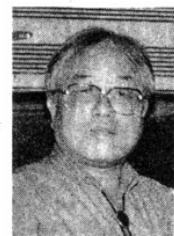
심우장은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찾아 올 정도로 불교계에서 그 지명도가 높다. 불교용품 판매 수익금은 모두 불교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

홍보가 부족한 탓에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지만 언제나 심우장은 '할인된 가격', '불교이념구현' 등의 이점을 갖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경

## 인터뷰

### "불교 대중화 운동의 선구자"



목정배 불교대학 불교학부 교수

만해의 불교업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불교 유신론'을 비롯해 만해는 '심현담주배', '불교 대전', '유마경국' 등의 책을 저술하여 불교교리를 집대성했으며 불교지에 많은 논설을 연재했다. 또한 '조선불교개혁안'에서는 선교 사상을 부연하여 설명하였는데 선교 교를 새의 두 날개에 비유하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일제시대 당시 만해가 대중불교 실패에 앞장섰는데.

=조선시대에 비하면 불교를 다시 부흥시키고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는 활동들을 벌였다. 불교유신론도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 모습 구현을 위해 내부의 혁신과 개혁을 강조하는 뜻을 모아 쓴 글이다.

-독립운동 당시 만해가 보여준 불교적 가르침은.

=우선 '불교적'이란 것은 '무아'라는 뜻이다. 무아란 자신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독립선언문의 공약 삼장 중 '공명정대'라는 말일 것이다. 이것은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큰 뜻으로의 화합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만해는 독립운동을 주도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불교를 하나의 철학으로 살아갔다.

-만해사상의 부흥을 위해 본교가 할 일은.

=본교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계가 그 동안 만해에게 쏟은 정열은 매우 미비하다. 활화산같이 한때의 열기로 만해를 기리고 흠모하지 않았던가 반성한다. 이번 심우장 철거 논란도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이제라도 만해를 정신적 지주로 여기는 본교에서 그에 관한 꾸준한 연구와 홍보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홍기삼 한국어 문학부 교수

### "시공초월 당대최고 시 창작"

만해의 문학적 업적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는 김소월 등과 함께 한국시의 전성기를 가꾸어 갔다. 그가 활동했던 1930년대는 식민지 시대의 사회적 암울함에 반해 아이라니하게도 한국문학, 특히 시에 있어서의 황금기였다. '님의 침묵'과 같은 시가 그의 최고의 업적이다.

-만해 시의 특징을 설명한다면.

=만해의 시는 어떤 시대에도 그 아름다움이 바래지지 않는다. 또한 만해의 시구 표현에 최대의 찬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지절의 정신은 독자로 하여금 경외감을 자아내게 한다.

-만해의 문학적 소망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그 대답을 난 아직 할 수가 없다. 만해가 비록 명진학교 1기로 졸업한 학생이었다 해도 그는 일제의 교육을 거부한 채 어떤 정규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서 그런 언어 감각이 나왔다는 것은 '천재성'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만해의 정신 세계를 표현한다면.

=앞서 말한 천재성과 강인한 정신력을 들 수 있겠다. 그의 문학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성들은 이를 대변한다. 그러한 천재성과 정신력이 이 땅의 민중에게 많은 삶의 희망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만해의 정신에서 학생들에게 들려 줄 교훈을 찾자면.

=만해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한 걸만 나아갔다고 한다. 성공하지 못할 길이라도 말이다. 무엇이든지 쉽게 포기하고 있어버리는 신세대들에게 그러한 치열함을 당부하고 싶다.

최진기자

## 메아리

### '승복'의 미

▲고등학생들은 매 학기가 시작하면 학급을 이끌어갈 인물을 선출한다. 여러명의 학생들이 학급 구성원들의 추천과 선거를 통해 반장으로 선출된다. 그리고 나서 후보로 나왔던 이들과 사이좋게 한 학기를 어울리며 생활을 하며 그 결과에 불만을 가지는 이는 없다. 왜냐하면 후보로 나온 학생들도 그 학급 구성원의 손으로 이미 승자가 판가를 받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두가

자신이 몸담고 생활하는 학급의 구성원들이며 그렇게 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인들은 전혀 그러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들은 항상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가장 큰 정당성과 확실성을 담보한 의사결정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를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얼마전 신한국당에서 처

경선에서 경선주자들은 스스로 경선의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선을 거쳐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출한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결과에 승복을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점자가 대선에 출마할 의사를 보이고 또다른 후보자는 그들의 대표에 대해 함담도 마다 않는다. ▲경선에서의 차점자는 먼저변에는 당 개혁안을 운운 하면서 당

총재직을 탐내더니 이번에는 대선 후보를 언급하며 승복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제는 후보 교체론이 아니라 자신이 독자적으로 출마할 의사를 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조순 서울시장의 경우도 시장직을 중도 하차한 것에 대해 많은 질타를 받았다. 과연 모두들 자신의 직함을 버리면서까지 또한 경선결과에 불복중하면서까지 꼭 출마를 해야 하는 것인가. ▲어느 경기준지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승자는 패자는 그들은 경기가 끝났다면 깨끗이 결과에 승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승자는 패자를 위할 줄 알고 패자는 그 결과에 승복을 할 때 경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임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태훈 취재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TEL:2603491·2/(0561)7702057·8 FAX:2791270 PC ID:dgpress

소나기

병역

△사회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치고는 너무 모순 투성이다. 너무 가슴 아픈 과정이다. △병역 ⇒ 홍역 누구나 한 번쯤은 치루어야 할...

△내가 군대 가면 명진관 없이 눈물바다 (고로 나는 면제 시켜라!) △너두 굴러봐 (일명 보조개) △난 공익인데 약 오를걸? (신의 서자) △병역기피에 감추기까지 → 이젠 범죄 행위야 △병역... 어서 통일이 되어야 할텐데

△애비는 종인가 부다. 나같다. △유전면제, 무전복부 △우리집은 남자 4명 현역 갔다 왔는데

△난 안간다. 불쌍한 놈들 잘 싸우다 오시길... △홍역은 안 치러도 병역은 꼭 치루어야 한다.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미친 것이다. △병역 면제자중

병)이 없는 사람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를 국화로

△돈 있고 백 있는 놈은 안 가고 나 같이 잘난 놈만 가야되고! △병역 신·검 슈퍼 날림 △배지질과 방위의 연관관계는 광경인 만이 알고 있다. 그치? 파파 스머프?

△안 가면 좋은 것이고, 가면 고생 바가지 △달뿔 박사라. △가서 느껴봐! △알았다.

△박찬호는 빼주고 영삼(미필)이랑 화장's sons을 보내자! △Q: 치질은 면제 안 나오요? △A: 귀향 후 다시 신경 받아야 돼요. △'병' 숙이! '역'에서 만나자-최성원 (96160377)

△황실수술: 군대에서 배울 것은 있다. 그것은 이런 더러운 사람들과 더러운 곳도 있구나 하는 것이다. ∴ 군대는 가야 한다.

△군대는 갔다오면 좋은 것이지! -해병 전우회 719 ⇒ 출병 놀이!!! -600자 기수 선임이 △관경학부 장현수 군이 가보면 알 겁니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 △군인이자저씨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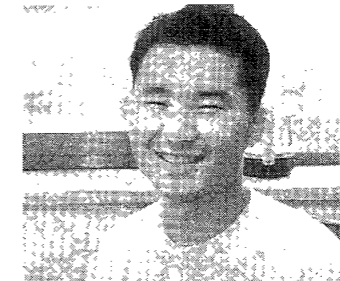
오늘의 글

문종호 (관광경영학과 3학년)

'경주의 향기' 통신방 개설 대중에게 관광정보 알리며 보람 느껴

"경주를 제대로 알고 싶어요. 경주는 문화 유적지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곳.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 소개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관광정보센터 요원 문종호(관경3)군은 오늘도 남산을 둘러보고 왔다고 한다.

그들의 이런 노력으로 지난 해 10월 1일 데이콤을 통해 경주의 관광정보를 제공 한데 이어 지난달 6일 나무누리, 25일 유니텔에 "경주의 향기"라는 통신방을 개설해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요. 또 새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해요"라고 주저 없이 말하는 그에게 일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에 대해 그는 "학교 학생들 보다 학외 사람들에게 더욱 인기가 높다는 것이 또다른 특징"이라 설명하지만 그에 표정에서 학생들의 무관심이 괜히 아타까운 모양이다.

학기 초의 휴강과 연강 학생의 권리 찾아야

수강정정기간인 요즘 학내가 분주한 것 같다.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강의를 둘러보며 수강정정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수업에 들어가 보니 강의 시작 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도 교수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던 학우들이 한 돌씩 일어나고 있을 때쯤 조교가 들어서 "교수님이 미국에서 아직 안오셨습니까"라고 했다.

또 강의 시작 시간이 30-40분 지난 후에야 나타나서 따로 떨어져 있는 1교시 수업을 2시간 연장하는 수업과 합치자는 경우도 있었다. 1시간짜리 강의는 1교시에 있는데 그 수업이 있는 날은 교수님이 다른 강의가 전혀 없고 그 수업 하나만을 위해 이른 아침에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이 이유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자세였다. 교수의 임의의 처분을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받아들이는 학우들의 모습과 오히려 좋아하는 기색을 보이는 모습은 충격이었다.

대학은 열린 사고와 냉철한 이성, 창조적인 변혁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이러

한 젊음의 공간에서 더 이상 잘못된 관행들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낡은 오류와 편견의 덩어리들을 날려 버려야 할 것이다.

학부생들의 문제점 지대한 관심·동참 필요

지금 동양의 학부생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선 학부생들은 분명 실시되고 있음에도 학부생들은 조금의 이의도 없고 있지 못하다. 또한 학칙상에도 학부생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한 예로 학내대표제가 지급되는 장학금은 학부 학내대표의 장학금이 아닌 기존의 학과 대표로 인정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학부를 대표하는 학부 학생회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학부생들의 자치공간 역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지금 학교생활에 사는 학부생들에게 별도의 공간(학회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의 학부

가 여분의 공간을 점거하거나 학교측과의 합의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가장 큰 논란거리인 전공선택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다.

이들 위해 각 학부의 대표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학부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몇몇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모임을 통해 결정된 의견은 각 단과대학 학장님과 교과의 면담을 통해 꾸준히 학교측에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온방굴 변화의 물결 학생위한 투자 제고해야

방학동안 경주를 떠나 고향으로 갔던 학우들은 개강 날 고향을 들어섰을 때 한 번쯤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을 것이다. '여기가 우리 학교 맞아?'라고 교문

을 들어서니 검은 아스팔트가 펼쳐지고, 1학기 편 없었던 가로등과 우측으로 개시판이 새로운 조형물로 등장하여 대학의 분위기를 많이 바꿔주는 것 같다.

한때 '모래시계'의 촬영 장소로 사용되었던 소강당이 으리으리하게 좋아져서 가 아니라 80년대 대학 강당을 찾았다. 낙차되었다나 어쨌든... 하여튼 이런 가로등이 밤마다 미묘의 동국 여학우들을 지켜 줄 것이고, 화장실까지 휴지가 없어 배를 움켜쥐고 발을 동동 구를 필요가 없어 전보다 많이 편리해 질 것 같다.

대학교과라고 하면 문화, 예술의 공간이 마련되고 걸거리도 그런 공간의 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교내 모든 길을 검은 아스팔트 칠을 해놓고, 아예 누런 선까지 그어놓고 도로화 해버렸다. 이게 낭만을 누릴 수 있는 대학교의 풍경이란 말인가? 경주 캠퍼스의 취약점이 문화, 예술 보급이 미비한 것인데, 어찌 학교는 문화, 예술을 보급할 생각이 하지 않고 점점 퇴보화를 추진하는가?

또한, 과별로 차별되게 적용되는 정책이다. 교내 거의 모든 건물은 지붕을 새로 단장하고, 벽을 새로 칠하고, 강의실

의자를 바꾸는 등 많은 미화 작업을 한 것 같다. 그러나, 한의학과는 예외이다. 강의실 의자는커녕 남들 다 칠해주는 지붕이나 벽도 새로 칠해주지 않았다. 이체가 겨우 자판기 한 대가 설치되었을 뿐이다. 그것도 4층 중 3층에 한 대, 기가 막힌 실정이다. 이게 무슨 복지정책인가... 우리가 낸 그 많은 등록금은 어디에 쓰이는지 참문화라도 열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이제라도 학생들을 위하여 가로등을 설치하고, 환경을 미화하고 화장실에 휴지를 배치하는 것들은 너무나 고마운 배려이다. 그러나, 아스팔트를 깔고 걸만 새 칠을 해서 뭔가 변화를 줬다고 생각해 내기 위한 것은 정말 억당다. 그런 걸치장 보다는 수업의 질을 높이거나 학생들의 복지위생을 실질적인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

우선, 절만 번지르한 속된 강정은 언젠가 그 빈 속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열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다면 이제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하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보길 바란다.

최영삼(한의대 한의예과)

동악광장

목욕탕

축하합니다 △근호형 출소한 거 축하해요. 두부 많이 드세요. 글구 또 가면 안돼요. -잔- △2일은 국교과 구오의 귀영동이 지황이가 스물 한 번째 태어난 날입니다. 축하! 아울러 이 날은 3학년 개강 잔치가 있습니다. -나쁜 친구- △한준이 생일 축하한다. -이쁜 누나가- △시랑스럽고 이쁜 주연이 생일 무지무지 축하해! -웃생긴 나용이가- △철호야, 뒷날 2기 가장된 것 축하한다. -시랑 생각하는 학술 소모임 뒷날 1기 가장- △34 김진의 생일을 일만이전 동국인들이 백원씩 모아 축하합니다. -자대94 철- △순우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월 27일) 탈에서 자주 못보면 혼납니다. -사랑하는 97이쁜이 XX- △97 영문 김보경 생일 축하축하! 꽃꽂이

열심히 합시다

△관공학과 학우여러분 2학기도

잘보냈습니다! -광창- △경제2 북학생, 재학생 개강 잘 해봅시다. -과대-

그리고...

△인구, 장주, 진옥, 동현, 정수! 늘 그러은 이름입니다. 달님도 한 가위 준비를 할 텐데... 오늘은 구숙형 형들에게 짧은 엽서라도 띄워주세요. -92-

수고하셨습니다

△POST 사람들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97 해진- △정경경제학 연구학회 한추야, 빨리 봉대를 주고 일어나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송희는 꼬맹이들, 경상학부를 사랑해 -97 꼬맹이- △용옥야 개강했다. 형들이 무척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노가다 그만하고 어서 학교로 돌아와라. -동국관 식당 알바생 동문회-

열심히 합시다

△관공학과 학우여러분 2학기도

△근호 오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동계 구름-

온방굴

축하합니다 △은영야 과대표 축하한다. 열심히 해라. -선배(94)- △늦었지만 조규식 양의 생일을 축하해요. 아직 선물 준비 못하신 분, 빨리 준비해서 친구 운주에게로 전해주세요. 연락처: 됐다! 삼건동! -Newsweek girl- △관경 96학년 장현수 군의 입대를 축하합니다. -97 S. Y. J- △동복(東豊)야! 19를 축하한다. -이쁜이- △정경 재창출에 성공한 1만 반장 일선군의 생일을 맨입으로 축하한다. -M-

수고하셨습니다

△심우회 · 마야 의료봉사와 어린이 교실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통일학교 열심히 치러내신 온방굴 통일일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정지학교 준비위원장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해방의 정치를 향한 개량과 보수로부터의 질서 재편 '97 정치학교 화이팅!

열심히 합시다

△멋진 불대 식구들 2학기엔 더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전(前) 기획이- △자연인 여러분! 방학 잘 보내셨는지요? 새로운 2학기를 일치고 뜻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學生/職/士 △한외대 상경 비대위 여러분! 1학기 동안 수고하셨구요, 계속 열심히 합시다. -lion- △10대 한외예과 학생 여러분! 2학기 때도 계속 토틀 토틀 열심히 살아봅시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물꽃-

다량관 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Food items (오징어까스(1300)(총식), 마파밥(1200)(석식), 소고기야채밥(1300), 버섯달걀밥(1300), 짜장밥(1200), 햄볶음밥(1200), 후라이드치킨(1500), 회덮밥(1300), 오징어볶음(1300), 두부김치(1200))

동국관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Food items (된장찌개(2800)고기백반(3200), 열무비빔밥(1200)제육볶음(1300), 추어탕(3400)돌솥비빔밥(3000), 민계튀김(1500)유랑크림치즈(1200), 별미우동(3000)너자볶음(3200), 산골국(3200)완자덮밥(3000), 송이버섯(1300)김비빔(1500), 소골국(3200)완자덮밥(3000), 코다리찜(1500)미트소스덮밥(1300), 한정식백반(중식)3200금정콩(석식)3000, 카레라이스(1200)팜랭국밥(1300)